

# 근대건축 증명전(重明殿)의 실내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erior Utilization Plan of Modern Architecture Jongmyongjeon

한지연\* / Han, Jee-Youn  
오인욱\*\* / Oh, In-Wook

### Abstract

Modern architecture after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has been defamed indifferently before preparing devices for preservation. Many modern architecture has been underestimated by the feeling of being cultural victimized for Japan and economic logic.

Other advanced countries make laws for their historic heritage with a concept for past-present-future. Also they re-create their cultural heritage to help their local economic.

As the Registration System is established at July 2001, we have to find organic, positive interior space utilization methods about modern architecture.

Modern architecture is private property in real using but it has historic trace. Therefore, modern architecture can be affirmative social property because it is a base of historic, cultural circumstances for local ident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methods of interior space for modern architecture.

키워드 : 근대건축, 증명전, 사바핀, 북카페

Keywords : The modern architecture, Jongmyongjeon, A.J.Scredin Sabatine, Book cafe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개화기 이후 세워진 근대건축물은 우리의 무관심속에 보존 계획이 마련되기도 전에 노후·훼손되고 있다. 일제에 대한 역사적 피해의식과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도시의 빠른 확장이 이루어지고, 무분별한 도시개발의 허용으로 이어지면서 근대건축의 상당수는 이미 멸실되고 훼손되어지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그들의 역사적 유산인 근대건축물을 과거-현재-미래의 공존에 개념을 맞추어 법규를 만드는 한편, 그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있다.

우리도 2001년 7월 근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등록문화재' 제도가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됨으로써 근대건축물 전반에 걸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실내공간 활용방안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근대건축물은 그 자체만을 두고 볼 때는 역사적 흔적을 간직 하되, 현실적인 쓰임이 이루어지는 사적(私的)인 자산에 불과하지만, 도시로 범위를 넓혀보면, 지역 정체성의 확립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역사·문화환경의 거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社會的 資本)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개항시기에 지어진 근대건축물 증명전(重明殿)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실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개화기 이후 조선에 근대건축이 들어오게 된 배경과 동시대에 지어진 증명전의 현황과 연혁, 증명전을 설계한 러시아 궁정 건축가 사바핀(A.J.Scredin Sabatine)에 대한 조사를 근대건축 이론서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그 시대의 근대건축 실내공간을 일본의 건축전문지인 「조선과 건축」에 실린 사례와 근대건축물의 현재 활용의 상황을 분류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유형을 유추함으로써 앞으로의 적극적 활용 방안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 정회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 명예회장,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 2. 근대건축 중명전(重明殿)의 이론적 고찰

### 2.1. 근대건축 중명전(重明殿)의 연혁

1896년 세워진 중명전은 현재 미국대사관 관저 쪽문과 울타리를 함께하고 있다. 중명전은 수옥헌 중 가장 중요한 건물로, 그 이름은 '무거운 빛의 전'이란 뜻이다. 고종이 궁궐의 도서관(King's Library)으로 세웠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 건물이다. 중명전은 러시아인 건축가 사바핀(Afanasij Ivanobich Scredin Sabatin)이 세운 것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의 벽돌조 서양식 건물이었다.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졌고, 이후 1세기 동안 한국 근대사를 지켜본 역사적인 건물이다. 또한 정동문화벨트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향후 문화적인 가치가 큰 문화유산이다.

원래 경운궁 궐내에 있던 건물이었으나, 경운궁과 중명전 사이에 들담길이 생기면서 경운궁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지금은 이 건물에 들담이 생겨 덕수궁 외곽지역인 정동으로 난 길을 가다 보면 위치하고 있으나 원래는 궁내 서쪽에 있던 초기의 이양관(異洋館) 중의 하나였다.

<표 1> 중명전 연혁<sup>1)</sup>

년	연혁
1900	중명전(重明殿) 준공
1904	4월 경운궁의 화재로 고종이 중명전으로 거처를 옮김
1904	11월 중명전에서 한일협약인 '을사늑약' 강제체결
1907	4월 고종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 파견한 특사의 접견장소
1915	경성구락부(외교클럽의 사교장으로 사용)
1925	3월 12일 화재이후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 보수
1960	경성구락부에 임대 사용
1963	영왕 이은(李垸)이 이방자여사에게 중명전(重明殿)을 거처로 기증
1976	민간에게 소유권 이전 후 여러차례 소유자 변경
1977	경한산업주식회사 소유
1983	서울시 유형문화재 53호로 지정
1998	정한개발 주식회사 소유
2003	재단법인 정동극장 매입(국고 49억 3백만원에 매입)
2004	국가(문화관광광부)가부 체납

### 2.2. 사바핀(A.J.Scredin Sabatine)과 근대건축

러시아 육군 출신으로 상해의 '居留地建築家'중의 한 사람인 사바핀이 조선에서의 일자리를 권유받았을 때 그는 궁정건축가로서의 업무에 매력을 느꼈고 또 초기에는 상당한 의욕도 보였다. 그가 제시한 벽돌제조요 설치안과 이영지붕 설치안이 이를 뒷받침한다.<sup>2)</sup>

사바핀은 조선에 와서 인천과 도성내의 여러 건축물을 설계·감독 하였다. 사바핀의 년표인 <표 2>을 보면 알 수 있다.

<표 2> 사바핀 년표<sup>3)</sup>

년 월 일	경력 및 건축 관련 활동
1860.	러시아에서 출생
1883까지	러시아 중국 上海에서 居留地建築家로 활동
1883.1-3	하스로부터 渡韓 권유 받음
1883.9.17	인천도착
1883-1884	신왕궁 도면 작성 벽돌제조요 설치안 제출 불연성의 이영지붕안 제출
1883.말	인천해관청사 설계
1884.부터	인천해관에서 토목사로 근무 (부두축조공사 감독)
1884.	제창양행 사택 설계
1885.	러시아공사관 설계
1888.4	인천해관 사직
1888.5	관문각신축공사 약정 및 감독
1988.7.2	대조선인천제물포각국조계지지도 작성
1891.9.21	관문각 약정건 사직
1893	명동성당신축공사 구조기술 자문
1893.10.22	충세무사청에 복직
1895.10.8	경복궁서위대 근무 중 을미사변 현장목격
1895.	로어학교 교사 신청(반려당함) 정동 러시아공사관 수리공사 담당
1896.	독립문 설계
1898.8	인천 흥림거양행 사옥 설계
1899.11	러시아 동제상해기선회사 인천지점장 취직
1900.이전	경운궁 양관정관원·돈덕전·구성헌·중명전·환벽정) 설계
1900.이후	경운궁 석조전 신축공사 감독
1901.	제물포 외국인 구락부 설계
1902.	순탁호텔 설계
1904.2	노일전쟁 발발로 귀국
1908	인천에서 사바핀 재산 경매, 일본 장기의 아들에게 전달

## 3. 중명전(重明殿)의 현황 및 사례조사

### 3.1. 중명전(重明殿)의 현황

1925년 화재로 외벽체만 남기고 전소(全燒)되자 곧 복원되었다.

중명전은 연면적 449.42m<sup>2</sup>(135.95평), 지하1층, 지상 2층의 회색 벽돌집으로서 정면 중앙에 현관을 두고, 그 상부 지붕의 정면과 후면 중앙에 지붕 돌출창(dormer)을 두었다. 창문은 1층에는 평아치(flat arch) 창이고, 2층에는 세그멘탈 아치(segmental arch) 창으로 이루어졌는데, 1층 창문 위에는 장식 아치를 두었다. 또 1층과 2층 벽면 사이에는 장식 벽돌 수평띠를 둘렀다. 현관 내부 바닥은 아름다운 모자이크 바닥을 깔았다. 단순한 2층 벽돌집이지만 1층의 창문은 무지개 모양으로 꾸며졌으며, 2층 서쪽에 베란다를 설치한 것이 특이하다. 1925년의 화재로 벽면만 남아있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지었으나 처음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져 있다.

1) 중명전(重明殿) 복원 및 활용 계획, 정동극장,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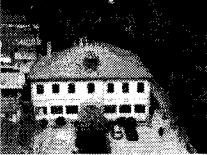
2) 金泰中, 開化期 宮廷建築家 사바핀에 관한 研究, 1996

3) 金泰中, 開化期 宮廷建築家 사바핀에 관한 研究, 1996

<표 3> 증명전 현황

현황	
건물명	증명전(重明殿)
공시기간	1896-1900
양식	러시아식 2층 벽돌조
설계자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 Sabatin)
용도	궁궐도서관(King's Library)
주요시설	지하층(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1층(서고, 사무실, 귀빈실, 화장실 등으로 추정), 2층(열람실, 서고, 사무실 등으로 추정)
규모	지하층, 지상2층, 벽돌 및 목조 트러스 구조
건축면적	237.31평(대지면적 : 727.09평)

<표 4> 증명전(重明殿)의 현황

증명전(重明殿)	현황사진	설명
외관		진회색 벽돌로 조적식구조
지하		방과 방을 연결하는 통로가 아치 형태
1층		입구에서 보이는 계단은 증명전이 지어졌을 당시 있었던 것으로 추정, 바닥의 타일도 그 시기 건축물과 유사
2층		2층의 베란다는 독특한 증명전의 구조, 베란다와 실내를 잇는 아치 형태 트인 복도 형식
지붕		옥담방이 앞뒤로 있으며, 골목이 3개 있는 지붕구조

### 3.2. 개화기 이후의 근대건축물 실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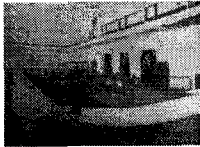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맺어짐에 따라 개항이 이루어졌고, 부산, 인천, 원산에 외국인에 의한 색다른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곧 도성인 서울 한복판에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이 나타나게 되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나 개항지에 외국인에 의해 지어지는 서양식 건물들이 속속 세워졌다. 이에 따라 도시 주변의 경관은 크게 바뀌어갔다.

특히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나서 고종황제는 의욕적으로 서양문물을 수용하고자 했고 서양문물의 도움으로 대한제국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노력하였다. 여기에는 당연히 서양건축

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도 뒤따랐다. 외국 열강의 침입에 시달리던 고종은 한편으로 왕실의 고유한 전통을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적극 외국 문물을 수용하여 이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5>는 개화기 이후 증명전(重明殿)과 같은 시기인 1890년-1920년에 우리나라에 세워진 근대건축물들이다. 이를 통해서 근대건축물의 실내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표 5>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에 세워진 근대 건축물 실내사진<sup>5)</sup>

연도	근대건축물	실내사진
1924년	선은안동현지점의 관업실	
1927년	동아일보사-음접간	
1927년	주식회사 18은행-관업실	
1928년	호루 주택의 대공간	
1930년	경성 제국 대학 도서관급 법문학부	
1930년	경성 제국 대학 도서관급 법문학부	
1930년	경성 골프 구락부	 

5)일본 건축지 「조선과 건축」, 1926-1936에 실린 내용

4)증명전(重明殿) 복원 및 활용 계획, 2005, 정동극장

### 3.3. cafe와 art shop의 실내 사례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cafe 및 art shop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분류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cafe와 art shop 실내

건축물	실내 사진	내부 설명
서울시립 미술관	cafe	천창을 통한 빛으로 시민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됨
	art shop	모던한 박스형식으로 잘 정돈된 내부 모습
일민미술관	cafe	투명유리로 파티션을 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개방된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함
한가람 미술관	art shop	유리박스에 상품을 진열함으로써 보존성을 높인 전시방법
국립현대 미술관	art shop	정돈된 전시방법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cafe	개방된 공간에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

### 3.4. 전시장의 실내 사례

근대건축 중명전(重明殿)이 복합적 문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1890년 중건 이후 중명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각적 자료화 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도심에 있는 갤러리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볼 필요가 있다. <표 7>은 도심에 있는 갤러리들의 전시 방법에 관하여 사례를 조사한 것이다.

<표 7> 전시장 실내 사례

건축물	실내 사진	내부 설명
가나아트센터		넓은 공간을 비움의 미학으로 전시형태를 구성
일민미술관		시각문화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전시 방법
국립 현대 미술관		복도 전시 및 코어 형식의 12층 복층으로 된 넓은 공간감으로 구성
호암 미술관		절제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의 전시구성 스포트라이트로 전시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

## 4. 중명전(重明殿)의 실내공간 활용방안

### 4.1. 중명전(重明殿)을 book cafe로서 활용방안의 당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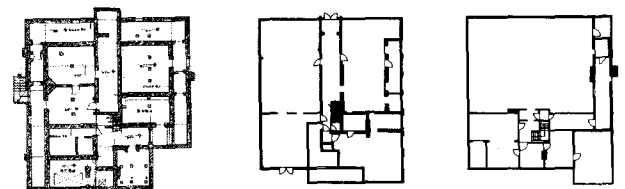
고종황제를 위해 지어진 신식 도서관(King's Library)인 중명전은 원래 지식과 문화로 민족의 앞날에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문화공간이었다. 건축사적으로도 우리나라 궁중에 지어진 최초의 서양식 건물 중 하나라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명전의 일부를 궁궐 도서관으로 쓰였을 당시로 일부 복원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중명전의 일부 복원은 <표 5>에서 언급했던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에 세워진 근대건축물 실내사진을 근거로 해서 그 시대의 실내공간을 유추하여 library 기능과 cafe의 기능을 접목시켜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4.2. book cafe로서 중명전(重明殿) 활용방안

중명전은 고종 황제가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도서관으로서 그 이후에 '경성 구락부'와 '서울 클럽'으로 사용되어져 주로 외국인을 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공간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실내환경도 그에 따라서 구획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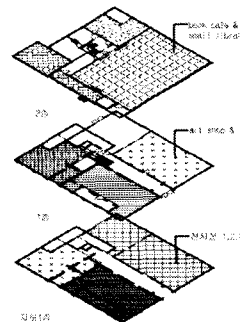
따라서 근대에 중명전이 사용되었던 테마들을 바탕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하1층 평면도(현황)

1층 평면도(현황)

2층 평면도(현황)



중명전 활용 계획 프로그램

1층은 art shop과 information place를 계획하여 중명전(重明)

지하 1층은 중명전(重明殿) 중건 후 중명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영상 또는 사진으로 전시하는 전시실로 계획한다. 지하층에서는 그 당시 계획되었던 아치형 구조 그대로를 사용하여 중명전이 거쳐 왔던 역사 그대로를 시각화하고, 재해석된 공간으로서 사용되는 방법을 제안한다.

殿)이라는 공간이 어떤 곳이며, 이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곳이라는 것을 부각 시킨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증명전 중건 당시 설계되었던 부분으로 화재시에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입구에서 보여지는 계단 부분을 부각시켜 증명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2층은 cafe 과 small library 기능을 부여해서 도서관이었을 당시를 한번 회상하게 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이 공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표 5>를 참고하여 그 당시 쓰였던 도서관 서가, 캐비닛 등을 고증하여 복원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증명전 실내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면서 하나의 공간에서도 다양한 디자인 방법을 도출 할 수 있었는데, 이는 건물의 조건과 설계자의 의도 그리고 계획 등의 변수에 따라 유사한 조건을 가진 건축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의 방향이 성립될 수 있다.

모든 건물이 그러하듯 그 시대가 변하면서 요구하는 의미와 사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재료의 발달과 다양성에 따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관점은 다양하다.<sup>6)</sup>

근대건축물 증명전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건과 그 시대의 건축 양식 그대로 일부 복원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근대건축물을 보는 관점과 직접 느껴보는 것에 대한 의미부여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이다.

## 5. 결론

### (1) 새로운 비전

증명전의 적극 활용 방안으로 book cafe라는 공간을 창출시킨다면 과거의 공간 증명전은 미래 지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증명전은 우리 역사에 대한 통찰력과 전통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주는 공익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표 8> 증명전의 새로운 공간 비전(New Space Vision)

1. 교육적인 공간 (Educational Space)	→	과거 역사 기록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공간
2. 문화적인 공간 (Culture Space)	→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우리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주는 공간
3. 공익적인 공간 (Public Space)	→ → →	시민 접근성이 높고 도시의 창의성을 높이는 열린 공간

### (2) 새로운 이미지 창출

6)서성호,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 방법에 관한 연구, 2005

'증명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을사늑약'이다. 따라서 <표 9>를 통해 증명전은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역사 공간으로 부활하게 된다.

<표 9> 증명전의 새로운 공간 이미지(New Space Image)

현 재	→	미 래
부정적인 역사의 현장	→	긍정적인 에너지의 공간
감추고 싶은 치욕의 공간	→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
버려진 공간	→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
어둠	→	빛

근대건축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미적 가치를 가진다. 하지만 일제 시대의 피해의식 속에 우리는 아직도 근대건축물을 도외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근대건축물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기능을 수용하여야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의 탈바꿈이 될 수 있다. 근대건축물인 증명전도 현대의 도시 공간에서 본래의 역사성과 기능성을 더하면서도 현대건축물과 같이 동등한 살아있는 건축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심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정동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에 잘 부합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의 활용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金泰中, 開化期 宮廷建築家 사바전에 관한 研究, 1996
2. 증명전(重明殿) 복원 및 활용 계획, 2005, 정동극장
3. 인천광역시,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2003. 5
4. 서성호,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 방법에 관한 연구, 2005
5. 서울 시립미술관 www.seoulmoa.seoul.go.kr
6. 일본 건축지 「조선과 건축」, 1926-1936에 실린 내용
7. 김동식,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2001,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8. 전현주, 도심 속의 섬 정동의 열림을 통한 소통의 제안, 2002,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전공 석사학위논문